

金富軾 故事의 詩的 變容과 傳承

—「東國四詠」 연구의 일환으로

成 範 重

I. 머리말

「東國四詠」은 고려 후기의 문인 益齋 李齊賢(1287~1367)이 金富軾(1075~1151)·鄭敳(1115 경~1171)·崔謙(1188~1260)·郭預(1232~1286)의 고사를 대상으로 작시한 데에서 비롯되어 及菴 閔思平(1295~1359)·圓齋 鄭樞(1333~1382)·柳巷 韓脩(1333~1384)·陽村 權近(1352~1409) 등을 거쳐 조선 전기의 梅月堂 金時習(1435~1493)에게까지 전승되었던 일련의 작품군을 가리키는데, 이 용어를 “우리 나라[東國]를 대표할 만한 네 인물의 풍류스러운 고사를 읊은 시[四詠]”라는 뜻이다. 그 대상 인물은 모두 고려시대의 권문세가 출신들로서 각기 독특한 故事를 남김으로써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부식의 고사는 그가 재상을 지내고 致仕한 후 나귀를 타고 개성 근교의 江西寺¹⁾로 惠素 스님을 찾아가서 忘形之交를 맺었다는 것이 중심이 된다. 이제현을 비롯한 후대의 인물들이 그 사실을 아름답게 여겨서 즐겨 시

1)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條에, 江西寺가 고을 동쪽 匡正渡 위에 있는데 見佛寺라고도 하며, 중 惠素가 여기 거주하였는데 金富軾이 늘 나귀를 타고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적 제재로 삼았고, 또 그것을 「동국사영」의 하나로 꼽았으니 그들은 김부식의 이 고사를 통해 진정한 親交의 한 표면적 의미를 찾으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김부식의 생애와 그 고사를 일별한 다음, 그 고사를 다룬 작품들을 「동국사영」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전해지는 한시까지 포함하여 살펴봄으로써 후대인들이 김부식 고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김부식의 생애

김부식은 경주 김씨로서 字가 立之, 號가 雷川, 諡號가 文烈이었다. 『高麗史』 「列傳」에는 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됨이 용모가 풍만하고 체구가 컸으며 안색은 검고 눈은 빛났다.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났으니 宋나라 사신 盧允迪이 왔을 때 富軾이 館伴이 되었는데, 그 사신의 한 사람인 徐兢이 부식이 글을 잘 짓고古今에 통달함을 보고 그 사람됨을 좋아하여 『高麗圖經』을 지음에 富軾의 世家를 신고 또 圖形을 그려 돌아가서 皇帝에게 아뢰니 이에 司局에 詔書를 내려 板에 새겨 널리 전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천하에 알려졌다. 뒤에 使命을 받들어 宋에 가니 이르는 곳마다 禮로써 대우하였고 세 번 禮闈를 맡아 선비 언음을 칭송하였다. 中書省을 贈하고 仁宗 廟庭에 配享하였고 文集 20권이 있다.²⁾

이처럼 김부식은 문장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에까지 그 이름을 떨쳤으며, 관운도 있어서 한 시대를 좌우할 만큼 화려한 경력을 지녔던 인물이

2) 爲人風貌碩體 面黑日露 以文章名世 宋使盧允迪來 富軾爲館伴 其介徐兢 見富軾善屬文 通古今 樂其爲人 著高麗圖經 載富軾世家 又圖形以歸奏于帝 乃詔司局鏤板 以廣其傳 由是名聞天下 後奉使如宋 所至待以禮 三掌禮闈 以得士稱贈中書省 配享仁宗廟庭 有文集二十卷.(『高麗史』 권98, 「列傳」 권11, 「金富軾」條)

었다. 그의 가문과 일생에 대하여는 金在滿 교수가 잘 정리하였기에 이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김부식은 신라 왕손의 후예로, 고려조에 들어와서도 누대의 명문세가로 군림한 귀품의 骨血이었다. 고려 건국 초에 태조 왕건에 의해 처음으로 경주 州長으로 임명되었던 金魏英이 그의 증조가 된다. 그의 아버지 金觀은 國子祭酒·左諫議大夫 등의 벼슬을 하였고, 그의 형인 富侗³⁾·富弼⁴⁾과 동생 金富儀[초명은 富轍]도 모두 등제하여 고관대작을 역임한 당대의 세도가들이었다.⁵⁾

이처럼 김부식은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의 건국과 함께 그의 증조부 金魏英은 경주 州長을 지냈으며, 부친 金觀은 물론 그의 형제인 金富侗·金富弼·金富儀 모두가 고관대작을 역임했던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다.

숙종 초년까지 고려에서는 세 아들이 등과하면 그 어머니에게 포상하여 歲廩 30석을 하사하였는데, 숙종 2년 김부지가 등제하자 앞서 형 3인이 등과하였으므로 이미 얻은 30석에 10석을 더하는 새로운 규칙이 생겼다고 하였으니, 이는 김부식 일문의 명성이 얼마나 당세에 떨쳤던가를 입증하는 이야기라 하겠다.

다음 대의 예종은 김부식 4형제를 文翰侍從으로 삼고, 세기의 대학자들 낳은 어머니를 大夫人으로 봉하였으며, 관리에게 명하여 새로이 歲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부식의 어머니는 이미 아들들의 녹양을 받고 있어 국은이 분에 넘치는 터에 어찌 감히 더 받을 수 있겠느냐고 사양하였다 한다. …… (中略) …… 김부식의 아들 敦中·敦時와 손자 君綏도 문신으로 이름을 났다.⁶⁾

여기에서는 세 아들이 등과하면 그 어머니에게 포상하여 歲廩 30석을 하사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김부식 등 4형제가 등과함으로써 30석에 10석을

3) 그의 둘째형이다.

4) 그의 맏형이다.

5) 金在滿, 『金富軾』, 『高麗의 人物』(『韓國人物史』 2, 大衆書館, 1981), p.181.

6) 위의 책, pp.181~183.

더하는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게 할 정도로 그의 가문이 당대에 위세를 떨쳤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 그의 아들 金敦中·金敦時 및 손자 金君綏道 문신으로 이름을 떨쳤다고 하여 그의 가문의 권세와 부귀가 후대에까지 지속되었다고 했다. 훗날 그의 아들 金頓중이 궁정의 연회에서 鄭仲夫의 수염을 태워 武臣亂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아우 金頓시와 함께 죽음을 당하는 화를 당하기는 하였으나, 김부식 및 그의 일문이 고려조에서 손꼽을 정도로 대단한 가문이었음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가 거친 중요한 벼슬만 해도 安西大都護府司 錄參軍事 翰林院直任 右司諫 中書舍人 寶文閣待制 御史大夫 戶部尚書 翰林學士 承旨 平章事 守司空 妙淸討伐軍中軍將 등이었으니 그가 얼마나 큰 권세를 누렸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그는 『國史記』를 찬수하였고, 『예종실록』 및 『인종실록』을 편찬하였으며, 대각국사 義天의 비문을 개찬하기도 했다. 이것은 그의 학문의 깊이를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공식적인 기록 이외에 詩話類에서는 그에 대한 몇몇 고사를 소개하고 있다. 우선 李仁老의 『破閑集』에는 다음과 같은 고사가 실려 있다.

樞府 金立之⁷⁾는 문장 이외에 墨蹟을 더욱 잘 그렸다. 일찍이 瀟湘江 언덕의 두 그루 대를 그려서 太宗伯⁸⁾ 崔相國에게 바치니 絶句 한 수를 지어 사례하였다.

선제께서 당시에 그대 그림을 살아 있는 대나무라 칭하였으니
 몇 번이나 서로 그리워하며 부질없이 정을 머금었던가?
 두 떨기 홀연히 西軒을 향하여 섰으니
 다만 뿌리가 땅에서 발생하지나 않을까 두렵네.

先帝當年稱活竹 幾回相憶謾含情
 兩叢忽向西軒立 只恐根株發地生⁹⁾

7) 立之는 金富軾의 字이다.

8) 太宗伯은 禮部尚書를 가리킨다.

9) 樞府金立之詞翰外 尤工墨君 嘗以湘岸兩叢獻太宗伯崔相國 作一絶謝之 先帝當年稱活竹 幾回相憶謾含情 兩叢忽向西軒立 只恐根株發地生.(李仁老, 『破閑集』 권상)

이 고사를 통해서 보면, 김부식은 문장 이외에도 그림에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¹⁰⁾ 특히 崔相國의 題畫詩는 活竹처럼 그림 속의 대나무가 마치 살아 있는 듯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에 대한 稱賞이다. 그림 속의 대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릴 듯하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신라 때의 화가 率居가 黃龍寺 벽에 老松을 그렸는데, 나무의 體幹이 거칠게 비늘지고 枝葉이 꾸불꾸불하여, 까마귀·솔개·제비·참새가 간간이 바라보고 날아들다가 다 와서는 어름거리다가 떨어졌다고 하는!¹¹⁾ 고사와도 통하는 것으로 그의 그림이 매우 사실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다음은 李奎報의 『白雲小說』에 실린 것으로서 김부식과 鄭知常 사이에 있었던 고사이다.

시중 김부식과 학사 정지상은 문장이 한 시대에 이름을 나란히 하여 두 사람이 서로 시기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세상에서 전하기를 정지상이 “琳宮¹²⁾에 불경 소리 끝나니 하늘빛은 마치 유리처럼 깨끗하네.”(琳宮梵語罷 天色淨琉璃)라는 글귀를 지었다. 김부식은 그 글귀가 너무나 좋아서 자기가 지은 것으로 하려고 그것을 달라고 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않았다. 그 뒤에 정지상이 김부식에게 죽임을 당하여 陰鬼가 되었다. 김부식이 어느 날 <봄을 읊다>(詠春)라는 시에서 “버들 빛은 천 줄기가 푸르고 복숭아꽃은 만 송이가 붉었네.”(柳色千絲綠 桃花萬點紅)라고 읊었다. 갑자기 공중에서 정지상 귀신이 나타나 김부식의 뺨을 갈기며 “천 줄기와 만 송이는 누가 세어 본 것이냐? 어찌하여 ‘버들 빛은 줄기마다 푸르고 복숭아꽃은 송이마다 붉었네.’(柳色絲絲綠 桃花點點紅)라고 하지 않느냐?” 했다. 김부식은 마음 속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었다.

그 뒤에 어떤 절간에 가서 뒷간에 갔다. 정지상 귀신이 뒤에서 불알을 움켜쥐고 묻기를 “너는 술도 먹지 않았는데 얼굴이 어찌서 그리 붉은가?” 했다. 김부식은 천천히 말하기를 “건너편 언덕에 단풍이 얼굴에 비쳐서 붉다.” 했다. 정지상 귀신은 불알을 바짝 쥐며 말하기를 “이게 무슨

10) 김부식은 이동주의 『韓國繪畫小史』(서문문고 1, 서문당, 1972), 安輝濟의 『韓國繪畫史』(志社, 1980) 등에 고려시대의 화가로 소개되어 있다.

11) 率居 新羅人 …… (中略) …… 生而善畫 嘗於黃龍寺壁畫老松 體幹鱗皴 枝葉盤屈 鳥鳶燕雀 往往望之飛入 及到踰躑而落.(『三國史記』 권48, 「列傳」 8)

12) 琳宮은 金玉으로 장식한 집으로 佛堂이나 道院 같은 집을 가리킨다.

가죽 주머니냐?” 하니, 김부식은 “네 아버 불알은 쇠주머니냐?” 하고 얼 굴빛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정지상 귀신은 더욱 힘을 들여 불알을 움켜쥐어서, 김부식은 결국 뒷간에서 죽고 말았다.¹³⁾

이 고사는 김부식과 정지상 사이에 알력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開京 출신으로 기득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던 김부식과 西京 출신으로 妙淸의 난에 동조했다고 하여 김부식에 의해 죽었던 정지상 사이의 대립 관계는 역사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되는 사실이다. 이 인용문에서 최초의 갈등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티프는 정지상의 詩句를 너무 좋아했던 김부식이 그것을 자기의 작품으로 삼으려고 정지상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정지상이 거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일이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있었는지의 여부는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 오히려 『백운소설』의 이 이야기는 중국의 고사를 끌어왔을 가능성이 있다. 『全唐詩』에 실린 劉希夷의 <代悲白頭吟>의 細註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希夷는 비파를 잘 탔다. 일찍이 <白頭詠>을 지었는데 “금년에 꽃 지니 얼굴빛이 변하는데, 명년에 꽃 피면 다시 누가 살아 있을까?” 하고는 후회하기를, “나의 이 시는 詩讖인 듯하니, 石崇의 ‘흰머리로 함께 돌아가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했다. 이에 다시 “해마다 꽃은 같건만, 해마다 사람은 틀리네.”라고 하고는 탄식하기를, “다시 먼저 번의 詩讖과 비슷하네.” 했다. 시를 짓고 한 해가 되지 않아 姦人에게 괴살되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宋之間이 希夷를 살해하고 <白頭翁>을 자기의 작품으로 삼았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 詩篇을 宋之間의 문집에 실은 것이 있다.¹⁴⁾

13) 侍中金富軾 學士鄭知常 文章齊名一世 兩人爭軋不相能 世傳知常有琳宮梵語 罷 天色淨琉璃之句 富軾喜而索之 欲作其詩 終不許 後知常爲富軾所誅 作陰鬼 富軾 曰 詠春詩曰 柳色千絲綠 桃花萬點紅 忽於空中 鄭鬼批富軾頰曰 千絲萬點 有孰數之也 何不曰 柳色絲絲綠 桃花點點紅 富軾心頗惡之 後往一寺 偶登 則 鄭鬼從後握陰囊 問曰 不飲酒 何而紅 富軾徐曰 隔岸丹楓照面紅 鄭鬼緊握 陰囊曰 何物皮囊子 富軾曰 汝父囊鐵乎 色不變 鄭鬼握囊尤力 富軾竟死於廁 中。(李奎報, 『白雲小說』, 洪萬宗撰, 洪贊裕 譯註, 『詩話叢林』 上, 通文館, 1993. pp.18~20) *번역문은 필자가 일부 수정하였다.

여기서 보면, 宋之問은 劉希夷의 <代悲白頭吟> 시를 좋아하여 결국 그를 죽이고 이 시를 자기의 작품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여기 문면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그 이면에는 송지문이 유희이에게 그 시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사정이 개재되어 있었을 것이다.¹⁴⁾ 이렇게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정지상과 김부식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다. 결국 『백운소설』에서는 정지상과 김부식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유희이와 송지문 사이의 고사를 끌어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두 고사는 다같이 다른 사람의 시에 반한 어떤 사람[송지문과 김부식]이 그 시를 지은 사람[유희이와 정지상]에게 그 시를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그 일에 대한 분풀이로 상대방을 죽이고 말았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백운소설』에서 정지상과 김부식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한 것은 유희이와 송지문의 고사를 끌어와 송지문처럼 김부식의 인간성에도 비정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송지문은 인격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중성이 인정되지만 그의 시 작품에는 전혀 그러한 점이 드러나지 않음으로써¹⁵⁾ 동양의 전래적인 관습인 ‘글은 곧 그 사람’이라는 점을 부정하는 대표적인 예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운소설』의 작자는 정지상과 대립적인 관계에 있었던 김부식을 송지문과 같은 인간 부류로 파악하여 그 점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洪萬宗도 『小華詩評』에서 『백운소설』에 실린 정지상과 김부식의 이 고사를 인용하고, 송지문과 유희이의 고사를 언급하면서 장인이었던 송지문이 사위인 유희이를 살해했다고 한 후, 결론적으로

14) 希夷善琵琶 嘗爲白頭詠云 今年花落顏色改 明年花開復誰在 旣而悔曰 我此詩似讖 與石崇白首向所歸何異 乃更作云 年年歲歲花相似 歲歲年年人不同 旣而歎曰 復似向讖矣 詩成未周歲 爲姦人所殺 或云宋之問害希夷 而以白頭翁之篇爲己作 至今有載此篇在之問集中者。(『全唐詩』上, 上海古籍出版社, 1990. p.210)

15) 胡雲翼은 『中國文學史』에서 “전하는 말에 宋之問이 이 시의 ‘해마다 꽃은 같건만, 해마다 사람 틀린다.’의 기공을 좋아하던 나머지 제 것으로 만들려고 劉希夷를 上囊으로 눌러 죽였다고 한다.”라고 하여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胡雲翼 저, 張基權 역, 『中國文學史』,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85. p.154)

16) 胡雲翼은 『中國文學史』에서 “宋之問은 원래 인격이 없는 졸렬한 문인으로 얕은 재주가 있어 열심히 응제하여 일개 어용시인은 되었으나 원래 고상한 成就를 바랄 수는 없었다.”라고 했다.(위의 책, p.152)

사람들이 재주를 싫어하고 이름을 좋아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시를 짓는 사람은 몰라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¹⁷⁾

이런 점은 논외로 치더라도, 김부식과 정지상의 관계는 『고려사』에서 비교적 상세하게 언급되고 있다. 즉 1135년(仁宗 13) 정월에 妙淸이 趙匡·柳昂 등과 함께 西京에서 반란을 일으키자 김부식은 반란군을 토벌하는 원수가 되었다. 왕이 兩府 大臣을 불러 군사 출병시킬 일을 물으니 김부식은 여러 재상과 더불어 의논하기를 “西都의 반란에 鄭知常·金安·白壽翰 등이 모의에 참여하였으니 이 사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西都를 가히 평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했다. 모든 재상이 깊이 그렇게 여겨 정지상 등 3인을 불러 오게 하고 비밀스럽게 正純을 혼유하여 勇士를 시켜 3인을 끌어내어 궁문 밖에서 베고 이를 아뢰었다는 기록으로 보아¹⁸⁾, 김부식은 정지상에 대한 私感이 있었던 차에 妙淸의 난에 가담한 사실을 핑계삼아 왕에게 보고하지 않은 채 그를 제거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 기록만으로 보면, 김부식은 소인배에 지나지 않으니 이런 사실이 『동국사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었다. 따라서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는 고사는 이것이 아니다.

III. 승려 혜소와의 관련 고사

김부식의 인간다운 면모와 풍류를 보여주는 것은 바로 혜소와 관련된 다음의 고사이다. 이 고사는 이미 이제현보다 훨씬 앞의 인물이었던 이인로의 『파한집』에 실려 전파되었다.

17) 按唐劉挺芝作白頭翁詩 其一句曰 今年花落顏色改 明年花開復誰在 其舅宋之問愛其句 乞而不與 怒以上囊壓殺之 噫人之猜才好名如是 爲詩者不可不知(洪萬宗, 『小華詩評』 권상, 趙鍾業 편, 『韓國詩話叢編』 3, 東西文化院, 1989. pp.295~296)

18) 十三年正月 妙淸與趙匡柳昂等 據西京反 王以富軾爲元帥 …… (中略) …… 王召問兩府大臣將出師 富軾與諸相議曰 西都之反 鄭知常金安白壽翰等與謀 不去是人 西都不可得平 諸相深然之 召知常等三人至 密諭正純 使勇士曳出三人 斬於宮門外 乃奏之.(『高麗史』 권98, 『列傳』 권11, ‘金富軾’條)

西湖의 중 惠素는 內典¹⁹⁾과 外典²⁰⁾에 該博하고 더욱 시에 교묘하여 필적도 또한 묘하였다. 일찍이 大覺國師를 스승으로 섬겨 高弟가 됐다. 國師가 僧科에 應試하기를 권하며 대답하기를 “내가 어찌 內殿관 말입니까? 길을걸이를 시험하십시오.” 하였다. 항상 國師를 따라다니며 문장을 토론하였다. 國師가 죽은 뒤에 行錄 10권을 撰하였는데, 金侍中²¹⁾이 이를 提要하여 碑文을 만들었다. 惠素가 西湖 見佛寺²²⁾에 가서 거처하였는데, 방안에 다만 방석 크기 만한 靑石 한 장을 두고 때때로 글씨를 써서 消遣하였다. 侍中이 벼슬을 내놓은 뒤에 나귀를 타고 자주 찾아가서 밤을 새우며 道를 談論하였다. 임금이 본시부터 그 이름을 듣고 內道場에 맞아들여 華嚴經을 講說하게 하고 백금을 많이 하사하였다. 惠素가 이것으로 모두 砂糖 百餅²³⁾을 사서 거처하는 안팎에 벌여 놓았다. 사람들이 그 緣故를 물은즉 답하기를 “이것은 내가 평생에 즐겨 먹는 것인데, 만약 내년 봄에 商船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하겠는가?” 하니 듣는 사람이 모두 그 眞率함을 웃었다.²⁴⁾

이 고사는 『東國輿地勝覽』에도 소개되어 있는데,²⁵⁾ 여기에는 김부식이 대각국사 義天의 高足弟子였던 惠素와 뜻이 맞아 致仕한 뒤에 혜소가 거처하는 西湖의 見佛寺로 나귀를 타고 자주 찾아가 밤을 새우며 道를 담론하였고, 혜소의 성품이 지극히 소탈하고 진솔하였다는 사실이 담겨 있다. 늙은 재상이 나귀를 타고 개성 교외의 절을 찾아 혜소와 밤새워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은 뜻이 맞으면 격의 없이 사람을 대하는 김부식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 사이에 대단한 화젯거리가 되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김부식과 혜소의 고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인로는 또 『파한집』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19) 內典은 佛經을 가리킨다.

20) 外典은 詩文을 가리킨다.

21) 金侍中은 金富軾을 가리킨다.

22) 見佛寺는 江西寺의 다른 이름이다.

23) 百餅은 백 덩어리를 말한다.

24) 李仁老 저, 成樂巖 역, 『破閑集』 권중(『韓國의 思想大全集』 3, 同和出版社, 1985), pp.199~200.

25)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 참조.

昌華公 李子淵이 南宋에 사신으로 가셨을 때, 潤州 甘露寺에 올라가서 강산의 좋은 경치를 사랑하여 따라간 뱃사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이 산천 누각의 형세를 자세히 살펴보고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이 가슴속에 새겨 두어라.” 하니 사공이, “명령대로 하겠나이다.” 하였다. 還朝한 뒤에 사공과 약속하기를 “대개 천지간에 무릇 형체가 있는 것은 서로 비슷한 것이 있지 아니한 것이 없으므로 瀟湘江 가에 九山이 서로 비슷한 것이 있어 길가는 사람들이 의심하게 되었고[九疑山], 황하의 흐르는 물이 아홉 번 굽이치는데 남해에는 아홉 번 꺾인 물굽이가 있으니, 이것으로 보건대 山形 水勢의 서로 타고난 것이 사람의 면목과 같아서 천만 가지로 다를지라도 그 중에 반드시 비슷한 것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나라의 蓬萊山에 가기가 머지 않아서 산천이 많고 빼어나기 중국보다 나은 것이 만 배나 되니, 그 형세가 어찌 京¹²⁶⁾와 서로 비슷한 것이 없겠느냐? 너희는 마땅히 한 조각배와 짧은 돛배로써 떠돌아다니어 물오리와 서로 浮沈하여 아무리 그윽한 곳이나 먼 곳이라도 찾아가서 나를 위하여 알아 오되, 마땅히 10년을 기약하고 바쁘게 서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하였다. 사공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무릇 6년이 지난 뒤에 비로소 서울 서호 가에서 그런 땅을 찾아 가지고 빨리 공에게 보고하기를 “이미 그런 땅을 얻었습니다. 하루 동안이면 왕래할 만하오니 한 번 가 보심이 좋을까 합니다.” 하였다. 드디어 함께 그곳에 登臨하자, 기쁨이 형용에 나타나며 “중국 감로사가 비록 기이하고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으나 다만 누각의 웅장함과 단청의 장식이 특히 승할 따름이다. 天生地作의 자연한 형세에 이르러서는 이와외의 거리가 참으로 九牛에 한 터럭이로다.” 하고 곧 돈과 비단을 들어서 재목과 기와를 갖추어 무릇 누각과 池臺의 制度는 한결같이 중국 甘露寺를 모방하였다. 일을 마침에 이르러 扁額에 題하기를 또한 甘露라 하였다. 지휘하고 계획함과 경영함이 이미 마땅하게 되었으니 1만 가지 경치가 채찍질하지 않고도 절로 이르러 왔다.

뒤에 詩僧 惠素가 처음 시를 짓고 또 시중 金富軾이 끝을 맺으니 들은 사람들의 화답한 것이 幾千餘 篇이었으므로 드디어 큰 시집을 만들었다.²⁷⁾

이 인용문도 조선시대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 거의 그대로 인용되

26) 京¹¹는 潤州를 가리킨다. 潤州 城東에 京峴山이 있기 때문이다.

27) 李¹:老 저, 成樂薰 역, 『破閑集』 권중, 앞의 책, pp.203~204.

어 후대에까지 그 풍류스러운 이야기가 전파되었는데,²⁸⁾ 앞부분은 개성의甘露寺가 건축되기까지의 과정을 서술한 것이다. 즉 李子淵(?~1086)이 중국 潤州의 감로사를 보고 감탄한 나머지 우리 나라에서 그것과 비슷한 勝景을 찾아 건축한 것이 바로 개성의 감로사로서, 그 樓閣과 池臺의 제도까지 중국의 그것을 모방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뒷부분이 바로 김부식과 혜소의 이야기이다. 혜소가 먼저 시를 짓고 김부식이 거기에 화답한 것이 알려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편의 시를 지었으므로 그것이 큰 시집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혜소가 지은 시는 현재 확인할 수 없지만, 김부식이 지은 작품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밖에도 김부식 및 혜소에 대한 자료가 몇 가지 더 있다. 이인로는 『파한집』에서 서예가인 신라의 金生과 고려의 大鑑國師 坦然 및 洪灌을 三絶이라 일컫는다고 하면서 眞樂公 李資玄이 죽었을 때 혜소가 제문을 지었다고 했고,²⁹⁾ 崔滋는 『補閑集』에서 김부식이 慧素³⁰⁾의 記文을 보고 律詩를 지으려 한 듯하다고 농담을 할 정도로 친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기도 했다.³¹⁾ 『보한집』에는 또 다음과 같은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실려 있기도 하다.

28)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참조.

29) 신라 사람 金生은 筆法이 奇妙하여 魏·晉의 書家들이 따를 바가 아니었고, 本朝에 이르러서는 오직 大鑑國師와 學士 洪灌이 그 이름을 독차지하여 무릇 寶殿 花樓의 扁額 및 屏障의 銘戒는 모두 이 두 분이 쓴 것이었다. 淸平 眞樂公이 추하였을 때 西湖의 중 惠素가 祭文을 짓고 國師가 이를 썼는데 더욱 힘을 들였고 그것을 돌에 새겨 전하니 세상에서 이를 三絶이라 부른다.(李仁老 저, 成樂燕 역, 앞의 책 권하, p.219.)

30) 惠素의 이름이 『補閑集』에서는 慧素라고 나온다.

31) 중 慧素가 金蘭 叢石亭의 記文을 지었는데 文烈公은 그것을 희롱하여 “이 스님이 律詩를 짓고 싶어했는가?” 하였다. 어떤 사신이 崑山公館에 시 10韻을 남겼는데 말이 많고 뜻이 완곡하였다. 郭東珣은 그것을 보고, “이것은 記文이요 시가 아니다.” 하였다. 특히 시와 문만이 다를 뿐 아니라 한 시문 가운데도 각기 그 體가 있다. 옛 사람의 말에, “對律句의 체는 杜子美요, 樂章의 체는 李太白이며, 古詩의 체는 韓愈와 蘇東坡다. 만일 文이나 辭라면 그체가 다 각기 한유의 글에 갖추어져 있으니 그것을 익숙하게 읽고 깊이 생각하면 그 체를 얻을 수 있다.” 하였다. 그러나 이태백이나 두차미의 고시도 한유나 소동파에 못지 않다. 그런데도 그렇게 말한 것은 후진들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의 체를 널리 배우게 하기 위해서이다.(崔滋 저, 南晚星 역, 『補閑集』 권상, 『韓國의 思想大全集』 3, 同和出版社, 1985. pp.260~261)

文烈公이 惠素師의 <고양이>(猫兒) 시에 화답하여 지었다.

땅강아지와 개미는 도가 있고 이리와 호랑이는 어지니
망령된 것 보내야 비로소 참을 구하는 것만은 아니네.
선사의 慧眼은 분별이 없으니
물건마다 모두 淸淨한 몸을 드러내네.

螻蟻道存狼虎仁 不須遺妄始求真
吾師慧眼無分別 物物皆呈淸淨身

…… (이규보의 <두꺼비>(蟻) 시와 이인로의 <개미>(蟻) 시 생략) ……

문순공의 시는 형용의 표현이 매우 교묘하고, 이학사의 시는 글귀마다 다 고사를 인용하여 쓰며, 문열공의 시는 뜻을 불교에 두고 이치를 말함이 매우 심원하다. 대체로 어떤 물체를 표현하는 작품에서는 고사를 인용하는 것이 이치를 말하는 것만 못하고, 이치를 말하는 것이 형용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그 잘 짓고 못 짓는 것은 뜻의 구성[構意]과 말 만드는 것에 달려 있을 뿐이다.³²⁾

이 인용문은 앞의 감로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혜소의 시에 김부식이 화답했다는 내용과 『보한집』을 지은 崔滋의 비평 기준을 밝힌 것이지만, 우리는 이 글을 통해서 김부식과 혜소가 보통 이상으로 친밀한 관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김부식이 송도의 감로사에서 혜소의 시에 차운하였다는 시를 살펴보기로 하자.

金富軾, <송도 감로사에서 혜원의 시에 차운하다>(松都甘露寺次惠遠韻)³³⁾

32) 文烈公和惠素師猫兒云 螻蟻道存狼虎仁 不須遺妄始求真 吾師慧眼無分別 物物皆呈淸淨身 …… (中略) …… 文順公形容甚工 李學士句皆用事 文烈公寄意淨屠言理最深 大抵體物之作 用事不如言理 言理不如形容 然其工拙 在乎構意造辭耳.(崔滋 저, 南晚星 역, 『補閑集』 권중, 앞의 책, p.282.)

33) 『東文選』, 권9. 이 시는 『三韓詩龜鑑』 『靑丘風雅』 『箕雅』 『大東詩選』 『小華

俗客은 이르지 못하는 곳에
 올라오니 마음이 맑아지네.
 산 모양은 가을에 더욱 좋고
 강 빛은 밤에 오히려 환하네.
 흰 새는 높이 날아가 버리고
 외로운 돛단배는 홀로 가는 모양이 가볍네.
 스스로 부끄럽네, 달팽이 뿔과 같은 세상에서³⁴⁾
 반평생 공명을 찾았음이.

俗客不到處 登臨意思清
 山形秋更好 江色夜猶明
 白鳥高飛盡 孤帆獨去輕
 白慙蝸角上 半世覓功名

이 시 제목의 惠遠은 곧 惠素를 가리킨다. 金性彦 교수는

제목에서 차운한 승려 이름을 惠遠·慧遠·惠素 등으로 표기하고 있
 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동문선』에는 惠遠이라 하였으
 나 『보한집』과 『동국사영』에서는 惠素, 혹은 慧素라 하였으며, 『동국여
 지승람』 「白川郡」, 佛宇, 江西寺에는 惠素라 하였다. 『대동시선』에서는
 이를 의식한 듯 승려 이름을 생략하고 그냥 <甘露寺次韻>이라 제목하였
 다.³⁵⁾

詩評』 『新增東國輿地勝覽』 등에도 실려 있다.

34) 이 이야기는 『莊子』 「則陽」에 戴晉人이 魏 惠王에게 한 말 중에 나온다.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에 나라가 있는데 觸氏라고 하고, 오른쪽 뿔 위에도 나
 라가 있는데 蠻氏라고 합니다. 때때로 이 두 나라가 땅을 다투어 싸우는데,
 전사자가 수만 명이 되고, 패잔병을 쫓아 15일이나 걸렸다가 돌아온다고 합
 니다.”(有國於蝸之左角者 曰觸氏 有國於蝸之右角者 曰蠻氏 時相與爭地而戰
 伏尸數萬 遂北旬有五日而後反) 따라서 좁은 세상에서 하찮은 일로 서로 다투
 는 것을 蝸牛角上的 爭鬪라고 한다.

35) 金性彦, 「金富軾의 삶과 文學」, 『韓國漢詩作家研究』 1, 太學社, 1995. 7.
 p.77.

라고 하여 이 시의 惠遠이 惠素를 가리킨다고 했다. 李鍾默 교수도 여기에 대해

제목이 『箕雅』 『大東詩選』에는 <甘露寺次韻>으로, 『小華詩評』에는 <題松都甘露寺>로 되어 있다. 『三韓詩龜鑑』에는 ‘惠遠’이 ‘惠袁’으로 되어 있고, 『靑丘風雅』 『東國輿地勝覽』에는 ‘惠素’로 되어 있는데, 실존 인물임이 확인되는 惠素가 옳을 듯하다. 『三韓詩龜鑑』 『靑丘風雅』 『箕雅』 『大東詩選』 『小華詩評』 『東國輿地勝覽』 모두에 ‘高飛盡’이 ‘孤飛盡’으로 되어 있다. 『小華詩評』에는 ‘登臨’이 ‘高臨’으로 ‘自慚’이 ‘自憐’으로 되어 있다.³⁶⁾

라고 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되는 이 인물은 혜소라고 보는 게 옳을 것이라고 보았다. 실제로 이 인물의 명칭은 이 밖에도 權近의 「동국사영」에서는 惠袁, 김시습의 「동국사영」에서는 惠臺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마 惠素의 ‘素’자가 ‘袁(遠)’·‘臺’자와 비슷한 데서 온 혼란으로 보인다. 이런 현상은 동일한 인물, 또는 사건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문헌을 통해, 또는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혼란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실제로 구비문학의 현장에서는 ‘南師古’가 ‘남삭이’로 바뀌기도 하고,³⁷⁾ ‘明沙十里’가 ‘명사야 십유’로,³⁸⁾ ‘金堤 萬頃’이 ‘징개맹개’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다.³⁹⁾

혜소가 감로사에 있으면서 먼저 감로사에 대한 시를 짓고 김부식이 화답하여 이 시를 지었으며, 거기에 화답한 작품이 천여 편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김부식과 혜소의 이름이 당시의 식자들 사이에 회자되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시의 작자인 김부식과 혜소와의 관계이다.

감로사에 있는 혜소를 찾아가 그의 시에 차운한 이 시는, 우선 首聯에서

36) 李鍾默, 「高麗時代 寺刹題詠詩의 作法과 文藝美」, 『韓國漢詩研究』 2, 大學社, 1994, 12. p.173의 주석 25).

37) 울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편, 『울산울주지방 민요자료집』,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0. pp.399~400 참조.

38) 위의 책, p.109.

39) 위의 책, pp.204~205.

김부식이 자신을 俗客으로 지칭하여 자연 속의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살아가는 혜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대비시키고 있다. 이어서 頷聯과 頸聯에서 눈앞에 펼쳐진 산과 강의 멋진 경관을 그린 다음, 尾聯에서 스스로의 半生을 돌아보면서 세속에서의 헛된 공명을 찾았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내용이 중심을 이룬다.⁴⁰⁾ 이 때 반평생 공명을 찾은 것을 부끄러워하는 속객(김부식)은 결국 자연의 일부인 양 살아가는 혜소를 그 지향점으로 설정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김부식과 혜소는 매우 긴밀한 친분을 쌓게 되었다고 하겠다. 뒷날 혜소가 거처를 옮겨 강서사에 거처하고 김부식이 致仕하게 되자, 김부식은 이 시에서 보여주었던 마음속의 지향점이었던 혜소를 찾아가 평소에 누리지 못하던 자연 속의 한정과 두 사람의 우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다고 하겠다. 김부식이 나귀를 타고 강서사로 혜소를 찾아가 쌓은 두 사람의 깊은 교분이 당시의 호사가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그들 두 사람의 격의 없는 교분이 한 시대의 빼어난 勝事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洪萬宗이 『小華詩評』에서 이 시에 대해 “표연히 홍진의 세상을 벗어난 아취가 있다.”고 한 평가⁴¹⁾는 김부식이 만년에 표연히 강서사로 승려 혜소를 찾아서 함께 소요했던 그 행적까지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즉 홍만중은 이 시에서 나타나는 김부식의 정신적 지향과 훗날 그가 혜소와 忘形之交를 맺었다는 결과를 함께 고려한 관점에서 평가했다고 할 것이다.

김부식과 혜소의 이와 같은 忘形之交는 당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후대

40) 감로사에서 후대의 시인들의 읊은 시에서는 대개 李子淵이 중국 潤州의 감로사를 모방하여 지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김부식의 이 시에 담긴 내용을 반영하거나 차운한 작품도 있다. 김부식 시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는 辛應時(1532~1585)의 <甘露寺 次陽村韻> : 樓壓江湖十里平 何年選勝此經營 子淵心匠須圖畫 京口山川自化成 對岸蠶粘漁屋比 緣崖蠓附旅人行 浪吟白鳥孤帆句 不覺新詩眼底生(『白麓遺稿』, 『韓國文集叢刊』 41, p.406)을 들 수 있고, 김부식의 이 시에 차운한 것으로는 徐溶(1558~1631), <甘露寺 次金平章韻> : 海近潮還汐 長江澄不清 鍾聲風引遠 月色夜深明 抱病權情少 逢俗俗慮輕 平生遠遊意 甘露幸同名(『樂峯遺稿』 권1, 『韓國文集叢刊』 63, p.146)을 들 수 있다.(밑줄 필자)

41) 洪萬宗, 『小華詩評』 권상, 趙鍾業 편, 『韓國詩話叢編』 3, p.295에는 이 시를 인용하고, “儻然出塵之趣”라고 평했다.

의 인물들에게도 한 시대의 勝事로 받아들여져서 후대 인물들에게까지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오랜 세월을 두고 계속해서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IV. 김부식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

1. 「동국사영」 작품군에 투영된 김부식 고사

江西寺에서 김부식과 혜소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제재로 한 작품은 「동국사영」을 중심으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이다. 「동국사영」에 들어 있는 김부식 고사를 다룬 시들은 제목이 모두 <김시중이 나귀를 타고 강서사의 혜소 상인을 찾아가다>라고 되어 있다. 표기는 '나귀를 타고'라는 뜻으로 '乘驢'(민사평) 또는 '騎驢'(정추·한수·권근·김시습)가 나타나고, '혜소'를 '惠素'(민사평·정추), '慧素'(한수), '惠袁'(권근), '惠臺'(김시습)로 표기하기도 하였지만 그 의미는 대동소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동국사영」 작품군에서는 모두 김부식이 致仕한 후 강서사로 혜소 스님을 찾아가서 흥금을 털어놓고 대화를 나누었다는 사실을 기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민사평의 작품을 보면, 그 제목이 <金侍中乘驢 訪江西惠素上人>⁴²⁾으로 되어 있다.

혼자 푸른 나귀 타고 푸른 산을 찾았는데
 山僧은 아마 豐干의 後身이었으리.
 이 늙은이의 실없이 많은 말이 아니었다면
 누가 그를 黃扉⁴³⁾의 首相으로 보았으리요?

獨跨青驢⁴⁴⁾訪碧山 山僧應是後豐干

42) 閔思平, 「東國四咏 益齋韻」, 『及菴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3, p.61. 이 시는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에도 실려 있다.

43) 정승의 문에는 누런 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不因此老閑饒舌 誰作黃扉上相看

이 시에서 민사평은 김부식과 혜소와의 관계를 중국 당나라 때의 승려 寒山·拾得과 豐干에 비기고 있다. 이들의 고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豐干은 天台山 國淸寺에 있던 중이다. 台州刺史 閻丘胤이 豐干에게 문기를, “태주에 높은 중이 있는가?” 하니, 풍간이 “國淸寺에 文殊菩薩과 普賢菩薩이 왔으니 부엌에서 그릇을 씻는 심부름을 하는 寒山과 拾得이다.” 하였다. 여구윤이 부엌에 가서 한산과 습득에게 절을 하니, 두 중이 웃으며 “풍간이 말이 많아서 누설시켰구나.” 하였다. 寒山과 拾得 두 중이 미친 것처럼 행세를 하여 절에서 천대를 받았는데, 豐干이란 중이 말하기를, “寒山은 文殊菩薩이요, 拾得은 普賢菩薩이다.” 하였다. 그 말을 들은 이가 한산과 습득에게 가서 절하니, 한산과 습득은 말하기를, “豐干의 입이 싸구나.[饒舌]”라고 하였다. 豐干은 阿彌陀佛의 化身이라 한다.⁴⁵⁾

민사평의 이 시는 위에 인용한 고사의 구조를 거의 그대로 끌어와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즉 위의 고사에서 자신들의 진면목을 숨기고 天台山의 國淸寺에서 부엌 심부름하는 일을 하고 있던 寒山과 拾得을 이 시에서는 김부식에 비기고, 그들의 본색을 누설시킨 豐干을 혜소에 비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위의 시를 살펴보면, 이 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민사평의 진정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起句에서 푸른 나귀를 타고 푸른 산 속에 있는 강서사를 찾아가는 김부식의 모습을 제시하고, 承句에서는 그 절간에 있는 혜소를 풍간의 後身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풍간과 관련이 있었던 한산과 습득의 고사를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도록 한 민사평의 의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轉句에서는 이 늙은이, 곧 풍간에 비유되는 승려 혜소가 실없이 말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結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은 강서사를 찾아온 사람이 바로 首相을 지낸 김부식임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신분을 숨기고 간소한 차림으로 절간으로 찾아간 김부식의 본색을 혜소가 다른

4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에는 ‘靑驪’가 ‘靑驢’로 되어 있다.

45) 『국역동문선』 2, 민족문화추진회, 1977. p. 481의 주 58)에서 재인용.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민사평은 이 시를 통해, 겉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김부식의 소탈한 성격을 강조하려 했고, 상대적으로 혜소의 饒舌을 질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에서 민사평이 혜소의 언행을 비판했다고만 보기는 어렵다. 민사평은 혜소의 그러한 언행이 있었기 때문에 김부식의 소탈한 행적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또 한편으로 위의 인용문에 나온 바와 같이 한산과 습득의 진면목을 알고 있었던 풍간처럼 혜소도 김부식의 진정한 면모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분을 초월한 망형지교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바탕에 깔고 있었다고 하겠다.

정추의 작품은 제목이 <金侍中富軾騎驪 訪江西惠素上人>⁴⁶⁾으로 되어 있는데, 그 細註에 “좌주 익재 시중이 명하여 읊다.”(座主益齋侍中命賦)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시는 그의 좌주 이제현의 명에 의하여 지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외로운 구름 바위 틈에서 피어나고 큰 강이 흐르는데
 相國이 나귀 타니 지경이 더욱 그윽하네.
 무슨 일로 왕래하며 여러 번 만나는가?
 山僧이 술을 사서 함께 누각에 오르네.

孤雲出岫大江流 相國騎驪境轉幽
 何事往來多邂逅 山僧沽酒共登樓

위에서 본 민사평의 시가 김부식의 소탈한 성격과 혜소와의 신분을 초월한 교분을 드러냄에 초점이 놓인다고 한다면, 이 시는 김부식의 자연 속에서 풍류를 稱賞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는 기구에서 강서사 주변의 산과 강의 경치를 그렸고, 승구에서는 그 속에 재상이 나귀를 타고 가니 지경이 더욱 그윽하다고 했다. 전구에서 그렇다면 왜 이런 곳을 여러 번 왕래하는지 의문을 제기한 다음, 결구에서 그 이유가 바로 산승, 곧 혜소가 술을

46) 鄭樞, 『東國四咏』, 『園齋彙』 권상, 『韓國文集叢刊』 5, p.196. 이 시도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에 실려 있다.

사서 함께 누각에서 즐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의 전·결구에서는 김부식과 혜소의 만남이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었다는 점과, 그 만남의 이유가 현실적인 이해 관계 때문이 아니라 진정한 교분 때문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정추는 세속적 이해를 떠난 진정한 교유, 즉 망형지교의 한 표본으로 김부식과 혜소의 만남을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수의 작품은 제목이 <金侍中騎驛 訪江西慧素上人>⁴⁷⁾인데, 이 시는 김부식의 또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강가의 푸른 산은 백 층으로 쌓였는데
한 마리 나귀의 맑은 그림자가 깨끗한 물결에 뒤집히네.
모름지기 즐길 바를 알아 무엇하리요?
스님을 찾는다고 억지로 말하지만 스님에 있음이 아니네.

江上青山疊百層 一驢清影倒波澄
須知所樂將何事 強道尋僧不在僧

이 시의 기구와 승구는 앞의 정추 시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다같이 아름다운 경관 속에 나귀를 타고 가는 김부식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전·결구는 상당히 다르다. 정추의 시에서는 김부식이 혜소를 찾아가는 것이 혜소와의 풍류를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 시에서는 겉으로는 혜소를 찾아간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혜소를 찾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한수는 이 시에서 김부식이 강서사를 찾아가는 것은 자연 그 자체의 玩賞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혜소와의 교유에는 별 뜻이 없었다고 해석함으로써, 지금까지 김부식과 혜소 사이의 망형지교라는 일반적인 시각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 3인의 시를 통해서 보면, 그들은 모두 김부식과 혜소의 교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나, 두 사람 관계의 밀접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민사평의 시에

47) 韓脩, 『奉和益齋相國東國故事四詩』, 『柳巷詩集』, 『韓國文集叢刊』 5, p.260. 이 시도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白川郡』에 실려 있다.

나타난 것은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면까지 서로 통하는 심적 교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해, 정추의 시에 나타난 것은 풍류에 바탕한 忘形의 진정한 교유의 단계, 한수의 시에 나타난 것은 두 사람의 교유보다는 단지 자연 완상이 중시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수의 시에서는 자연을 즐기기 위해 간 그 곳에 승려인 혜소가 있을 뿐이라는 정도로 그 친밀도가 약화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작품들에 대해 권근의 시는 또다른 각도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 그의 작품은 제목이 <金侍中騎驪 訪江西惠袁上人>⁴⁸⁾이다.

廟堂의 큰 인물이라 사직이 근심스러워
나귀 타고 맑게 휘파람 불며 산언덕에 이르네.
經世濟民을 돕고자 기꺼이 禪僧과 대화하지만
다만 가히 들판의 계책이 쓸쓸할 뿐이네.

鄭廟宏材社稷憂 騎驪清嘯到山丘
肯將禪話裨經濟 只可蕭然野外謀

이 시는 기구와 승구에서 묘당의 큰 인물인 김부식이 사직을 근심하는 마음에 사직을 편안케 하기 위한 방도를 구하려는 목적으로 나귀를 타고 산 속의 절간을 찾아간다고 했다. 전·결구에서는 경세제민에 도움을 주려고 스님과 대화를 나누지만 “들판의 계책이 쓸쓸할 뿐”이라고 하여 승려로부터 뚜렷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김부식과 혜소의 만남을 경세제민의 治道에 도움을 받으려는 관료의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로 전환하여 이해하는 이러한 시각은 앞서 살펴보았던 고려시대의 세 사람이 쓴 시의 그것과는 엄청난 거리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김부식의 생존 당시 또는 그 이후에 망형지교의 한 표본으로 인식되었던 이 두 사람의 교유에 대한 권근의 이러한 현실적인 차원에서의 인식으로 보아 이 시는 조선이 건국된 후, 불교를 배척하고 유교를 국가의 기본 통치 이념으로 설정한 이후에 쓴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시는 조선의 건국 이후 「佛氏雜辨」을 지은 鄭道傳이 1398년 제1차 王子의 난 때 李芳遠에 의해 제거되고, 권근이

48) 權近, 『陽村集』 권9, 『韓國文集叢刊』 7, p.108.

1401년(太宗 1) 藝文館大提學이 되고 이듬해 知貢擧를 맡아 조선시대 최초의 文衡으로 활동하게 된 이후에 제작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더 정확하게는 그의 문집에서 권1의 應製詩를 제외한 나머지 권2부터 권10까지의 시들이 대개 제작 연도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癸未年(1403년) 9월에 지은 시와 乙酉年(1405년) 正月에 지은 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1403년 9월에서 이듬해 12월 사이에 지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도 흔히 그의 작품을 평가할 때 동원되는 조선시대 최초의 대제학 출신으로 응제시 등 관곽문학을 대표하는 시인이라는 등의 개인사적 편력과 관련되어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김시습의 작품은 제목이 <金侍中騎驪 訪江西惠臺上人>⁴⁹⁾인데, 이 시도 앞에서 살펴본 작품들과는 또다른 시각에서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머리 위로 붉은 티끌이 석 자나 날리니
벼슬아치는 늘 위기를 겪을까 두려워하네.
다투어 서리맞은 대나무 속 江西寺로 가는 것은
한결같은 禪窓의 맛에 是非가 없기 때문이네.

頭上紅塵三尺飛 簪纓常恐履危機
爭如霜竹江西寺 一味禪窓無是非

이 시는 기구에서 국가의 정국이 한 치 앞을 짐작할 수 없기 때문에 관료들의 처신이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다음, 승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위기가 닥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했다. 전구와 결구에서는 김부식이 날을 다투어 강서사로 간 까닭은 절간에는 세속의 시비와는 상관없는 한결같은 청정한 맛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시는 崔致遠의 <題伽耶山讀書堂> 시와 비슷한 뜻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최치원이 당면했던 정치적 상황이 당나라 유학파와 국학파의 정치적 대립이었다고 한다면, 김시습이 목격한 정치적 위기 상황은 1453년(端宗 1)의 癸酉靖難, 그 후에 일어난 1455년 단종의 폐위, 이듬해 단종 복위운동

49) 金時習, 『詠東國故事』, 『梅月堂集』, 『詩集』 권2, 『韓國文集叢刊』 13, p.113.

의 실패로 인한 死六臣의 참변 등이었다고 할 것이다. 김시습은 이러한 정변을 목격함으로써 기구와 승구에서의 정치적 상황을 김부식이 처하였던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이 위와 같이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김시습의 이 시는 결국 외형적으로 시적 제제는 김부식과 혜소의 친교를 끌어온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내면적으로는 시인 자신이 살던 시기의 정치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투영시킨 작품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시는 김부식과 혜소의 친교라는 측면보다는 어지러운 정치 현실로부터의 도피라는 새로운 의경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전구와 결구에 드러난 김시습의 불교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1455년 단종 폐위 이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었던 그의 개인사적 편력과도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시의 제작 시기는 1456년 사육신의 참변을 전후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에 제작된 권근과 김시습의 작품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던 작품들과는 또다른 시각을 담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작품은 시인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이 매우 긴절하게 반영됨으로써 애초에 김부식과 혜소를 통해 구현되었던 망형지교의 한 표본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다만 이 두 사람이 절간 속에서 만났다는 외형만 남은 상태에서 시인들이 처한 상황의 당위적 문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진승은 동일한 고사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얼마나 다른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이다.

2. 기타 작품에 투영된 김부식 고사

다음에는 「동국사영」 이외의 작품에서 강서사에서 김부식과 혜소의 흔적을 투영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작품들을 몇 수 살펴보기로 하겠다.⁵⁰⁾

楊士彦(1517~1584), <강서사 주지에게 주다>(贈江西寺住持)⁵¹⁾

50) 이 작품들은 명백히 김부식과 혜소의 고사를 다룬 것이라는 증거가 없기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이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들이다.

51) 『蓬萊詩集』 권1, 『韓國文集叢刊』 36, p.418. 이 시는 劉在建 편, 『古今詠物近

비바람에 나그네 길을 위로해 주는 이 없는데
江西寺의 住持僧이 가장 반겨 주네.
서로 만나 문득 <丹沙賦>를 말하는데
山僧이 또 이름을 아는 게 부끄럽네.

風雨無人慰客行 江西寺主最歡迎
相逢便說丹沙賦 慙⁵²⁾槐山僧亦識名

이 시는 겉으로는 김부식과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내면적인 측면에서는 민사평의 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가 시인 자신[양사언]과 강서사 주지의 관계로 전화되어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바람 치는 험한 날씨에 강서사를 찾아가니 주지승이 반겨 줄 뿐 아니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산 속의 스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어서 부끄럽다고 했다. 이 때 스님과 시인을 연결시켜 주는 매개물은 <丹沙賦>라는 양사언의 작품이다.⁵³⁾ 이 점도 김부식이 강서사로 혜소를 찾아가기 전에 서로 작품을 통해 알고 있었다는 사실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이 시는 비록 겉으로는 김부식 및 혜소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듯 보이지만, 작품의 내면적인 면에서는 이 두 사람의 고사와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품의 주제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친분 이상의 그 무엇도 아니다.

辛應時(1532~1585), <강서사에서 스님에게 주다>(江西寺僧僧)⁵⁴⁾

몇 번이나 江西寺에서 놀았던가?
시를 구하는 스님을 만나 오랫동안 머무네.

體』 권21, 『佛寺類』(亞細亞文化社 影印, 1981, v.3, p.578)에는 <江西寺謔吟>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52) 『古今詠物近體』에는 ‘慙’이 ‘殊’로 되어 있다.

53) 이 시의 제목에는 “僧問莫是賦丹砂者乎 時以大同察訪過此.”라는 細註가 붙어 있다.

54) 『白麓遺稿』, 『韓國文集叢刊』 41, pp.392~393.

호수와 산을 보는데 익어서 다른 생각이 없는데
누가 붉은 누각을 푸른 개울에 비치게 하였는가?

幾度江西寺裡遊 逢僧長被索詩留
湖山慣見無餘料 誰遣紅樓映碧流

이 시도 겉으로는 김부식과 혜소의 고사가 투영된 흔적이 매우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굳이 그 관련성을 찾자면, 이 두 사람이 자주 만났다는 점과 두 사람의 관계가 시를 매개로 한 만남이라는 측면,⁵⁵⁾ 그리고 정추와 한수의 시에서 드러나듯 강서사라는 이 절이 매우 아름다운 경관 속에 위치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김부식과 혜소의 고사가 워낙 유명하였기 때문에 이 시를 지은 辛應時도 강서사에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관련된 시상을 전개하였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국사영」에 들어 있는 작품들과는 달리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보이지 않는다. 그 까닭은 「동국사영」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제목에서 명시되어 나타나듯이 그들의 교유 자체가 직접적인 시적 재제가 되고 있음에 반해, 이 두 작품은 일종의 유람시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시인 자신의 행적이 중심이 되고, 기타의 고사나 전설은 시상을 전개하는 데 보조적인 것에 머물고 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V. 맺음말

이상에서 「동국사영」 작품군에서 주요한 대상이 되는 김부식 고사의 시적 변용과 전승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논의된 바를 요약하여 결론을 대신하기로 하겠다.

55) 이 점은 이 시와 같은 제목의 다음 시의 尾聯에서도 확인된다.

作別歸來晚 烟波江上愁 寒潮初繫纜 秋雨更登樓 漠漠鳥投樹 沉沉雲暗洲 山僧不知我 錯道爲詩留。(『白麓遺稿』, 『韓國文集叢刊』 41, p.401)

김부식은 신라 왕족의 후예로서, 고려의 건국과 함께 그의 증조부 金魏英은 경주 州長을 지냈으며, 부친 金觀은 물론 그의 형제인 金富侁·金富弼·金富儀 모두가 고관대작을 역임했던 대단한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삼국사기』를 찬수하였고, 『예종실록』 및 『인종실록』을 편찬하였으며, 대각국사 義天의 비문을 개찬하기도 했으니 이것만 보아도 그의 학문과 문장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으며, 또 그림에 매우 뛰어났던 것으로 평가된다. 『백운소설』에서는 정치상과의 관계를 설정하면서 중국 당나라 때의 유희이와 송지문 사이의 고사를 끌어와 그의 인간성도 송지문처럼 비정하고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드러내려 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부식이 「동국사영」의 대상이 되게 된 고사는 정치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각국사 義天의 高足弟子였던 惠素와의 관계에 있었다. 혜소는 惠遠·惠遠·惠臺 등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인물로서 內典·外典에 뛰어나 眞樂公 李資玄의 제문을 짓기도 했던 學僧이었다. 그와 혜소와의 관계에서는 李子淵이 중국 潤州의 감로사를 본따 개성에 지은 감로사에서 혜소를 만나 차운시를 짓자 듣는 사람들이 화답한 것이 수천 편에 이르렀다는 사실 이외에, 그가 致仕한 후 혜소가 거쳐하는 西湖의 강서사[견불사]로 나귀를 타고 자주 찾아가 밤을 새우며 道를 담론하였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김부식과 혜소의 이와 같은 忘形之交는 당대의 인물들뿐만 아니라 후대의 인물들에게도 한 시대의 勝事로 받아들여져서 후대 인물들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됨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작품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김부식 고사의 시적 변용과 계승을 살펴볼 때, 그 주된 대상은 강서사에서의 김부식과 혜소의 교유이지만, 「동국사영」 작품군에서도 이들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 그 중 고려시대에 제작된 민사평·정추·한수의 시는 각기 김부식과 혜소의 교유에 대해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에 바탕하고 있으나, 두 사람 관계의 밀접도에 대한 인식이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드러낸다. 민사평의 시에 나타난 것은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가 겉으로 표현되지 않은 면까지 서로 통하는 심적 교유의 단계라고 할 수 있음에 비해, 정추의 시에 나타난 것은 풍류를 바탕으로 한 교유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수의 시에서는 두 사람의 교유에 중점이 놓이기보다는 자연 완상이라는 데에 중점이 놓임으로써 혜소와의 관

계는 친밀도가 매우 약화된 모습으로 나타난다. 즉 자연을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그 곳에 단지 승려인 혜소가 있을 뿐이라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시대에 제작된 권근과 김시습의 「동국사영」은 고려시대에 제작되었던 작품들과는 또다른 시각을 담고 있다. 이 두 작품은 시인 자신들이 처한 정치적 현실이 매우 긴절하게 반영됨으로써 애초에 김부식과 혜소를 통해 구현되었던 망형지교의 한 표본이라는 의미는 퇴색되어 버리고, 다만 이 두 사람이 절간에서 만났다는 외형만을 반영시킨 상태에서 시인들이 처한 상황 속의 당위적 문제를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전승은 동일한 고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과 시각의 변화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또 「동국사영」에는 들지 않으면서 김부식 고사를 다룬 楊士彦의 <贈江西寺住持>와 辛應時的 <江西寺贈僧>에서는 김부식과 혜소의 관계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이 보이지 않는데, 이것은 「동국사영」과는 달리 이 작품들이 유람시의 성격을 띠므로써 시인의 행적이 중심이 되고, 기타의 고사나 전설은 시상 전개에 보조물에 머물기 때문으로 보인다.